

## 지역 코스닥 법인 지난해 1000원 팔아 고작 21원 남겨

[뉴스시스 2008-04-11 13:33]

### 【대구=뉴스시스】

대구경북지역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들은 지난해 1000원 어치를 팔아 고작 21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증권선물거래소 대구사무소가 지역 12월 결산법인 80개사의 2007년도 결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등록법인의 매출액은 약 32조9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0.65% 증가했고, 코스닥시장 매출은 약 4조9741억원으로 전년대비 4.37% 늘어났다.

매출액 순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포스코가 22조2066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일모직(3조1124억300만원), 대구은행(1조9318억6700만원), 새한(7441억원), 포항강판(6696억5400만원) 순이고 코스닥시장은 LG마이크론(6658억3100만원)에 이어 에코플라스틱, 평화정공, 포스텍, 삼정피앤에이 순이었다.

매출액증가율은 C&우방이 전년대비 39.88% 증가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높았고 현대금속(38.58%), 웰라인(30.20%), 동일산업(22.57%), 상인브레이크(22.09%) 순이며, 코스닥시장은 아이메카(428.68%), 동신건설(103.35%), 서한(84.68%), 시노팩스(66.10%), 소디프신소재(56.51%) 순으로 나타났다.

영업이익은 유가증권시장이 약 5조204억원으로 전년대비 9.44% 늘어난 반면 코스닥시장은 1037억원으로 32.61% 감소했다.

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포스코(4조3082억7500만원), 대구은행(3648억2800만원), 제일모직(2240억6200만원), 화성산업(369억1100만원), 동일산업(258억7500만원)이고 코스닥시장은 소디프신소재(241억8100만원), 포스텍(207억9600만원), 케너텍(158억1600만원), 동신건설(156억2800만원), 세원물산(148억4700만원) 순이다.

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C&우방랜드가 전년대비 417.37% 증가해 가장 높았고 상신브레이크(274.99%), 동일산업(261.33%), 대호에이엘(86.88%), 제일연마공업(73.23%) 순이고, 코스닥시장은 시노팩스(397.74%), 미주제강(299.13%), 참테크글로벌(261.50%), 태양기전(209.45%), 일지테크(131.54%) 순으로 나타났다.

또 유가증권시장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5.23%, 코스닥시장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.08%로 각각 전년대비 0.17%와 1.14% 감소했다.

남기지 못하는 셈이다. 2006년에는 유가증권에서는 154원,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들  
었다.


유가증권 시장이 약 4조542억원으로 전년대비 16.13% 늘어난 반면 코스닥시장은  
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에 비해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

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은 33.39%, 코스닥시장은 95.32%로 전년말에  
%와 16.92%씩 늘어났다.

자 wsm@newsis.com

© '한국언론 뉴스허브' 뉴시스통신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

소 : [http://news.naver.com/news/read.php?mode=LOD&office\\_id=003&article\\_id=0002046294](http://news.naver.com/news/read.php?mode=LOD&office_id=003&article_id=0002046294)

 인쇄하기

 닫기